



소리주보

■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사진 : 김현정 헬레나
(수정성당 · 주보 표지
공모전 사진 부문 1등)

입 당 송 시편 68(67),6-7.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창세기 18,20-32

화 답 송 시편 138(137),1과 2ㄴ,2ㄱㄴ과 3,6-7ㄴㄴ,7ㄹ-8 (© 3ㄱ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1.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2.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3.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

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4.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콜로새서 2,12-14

복음 환호송 로마 8,15 참조

◎ 알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 음 루카 11,1-13

영성체송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청소년사목국

7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노인들)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려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고집을 부리고, 이상한 논리를 근거로 억지주장하기도 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서운해하거나, 남들로부터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지만, 내 이름, 내 뜻, 내 나라를 못 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성찰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느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앞세우기만 하고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 내 뜻, 내 나라를 버리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

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지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골짜기를 메우는 일에 우선이기보다는 오히려 산과 언덕을 부러워하고 더욱더 높은 산과 언덕이 되려고 경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골짜기를 파내어 산과 언덕 위에 올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이름과 내 나라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이름과 나라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뜻,

자신의 나라를 버려야만 제대로 바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전에 우리 안에 정말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과 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바치는 주님의 기도가 빈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손 지 호

베드로 신부
덕신성당 주임



은전
한노



소년의
친구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캘리그래피. 김태자 베르베두아 (양산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제) 16:50

7.25(월)~26(화)
손지호 신부(덕신성당 주임)
7.27(수)~7.30(토)
박힘찬 신부(오순절평화의마을 부원장)

신부님신부님우리신부님

7.26(화) 12:15~14:00
진행 : 한요안 신부(광안 보좌)
<부산탐방 '오데가꼬?'>

출연 : 안원철 신부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김다정 데레사

7.27(수) <하늘타리>다시 일상을 찾은

교회공동체 3 - 옥동성당 가족캠프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2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요약)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 92[91],15)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 92[91],15)

시편 저자의 이 말은 기쁜 소식, 곧 제2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든 이에게 선포할 수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 말은, 삶의 이 단계에 대하여 세상이 가지는 생각은 물론, 우리 노인들 가운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품고 있지 않은 일부가 보여 주는 암울한 체념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피하면 좋을 일종의 질병으로 치부합니다. 사람들은, 노인들이 결코 자신들의 관심 대상도 아니고, 자신들이 노인들의 문제를 뒤흔다 꺼리하지 않도록 노인들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이나 시설에 따로 떨어뜨려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버리는 문화’의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래도록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꺼려야 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징표입니다. 행복하여라, 노인과 함께 사는 집! 행복하여라, 노인을 공경하는 가정!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나이 들고 머리가 하얗게 세어도 끊임없이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악에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이 육체의 자연스러운 쇠함이나 피할 수 없는 세월이 아니라, 장수를 누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노년에도 우리 자신을 돌보고 활동적으로 생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영성적 관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사를 받고 전례에 참여하면서 우리 내면의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맺는 관계와 더불어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도 돈독히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노년은 항해를 포기하고 돛을 접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며 미래를 바라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온유

함의 혁명”, 곧 영적이고 비폭력적인 혁명을 위한 우리 노인들 나뭇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여러분, 이러한 혁명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맺으라고 부름받은 열매는 세상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이나 기도만으로라도, 우리 손주들뿐 아니라 만난 적은 없지만 전쟁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거나 전쟁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집에 질린 손주 같은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무릎을 내어줄 때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관심이 많은 아버지였던 요셉 성인처럼 우리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등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 마음으로 지켜줍시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유함의 혁명**을 이루는 장인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닌 가장 소중한 도구이며 참으로 우리 나이에 가장 어울리는 일인 기도를 더욱더 자주 언제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움으로써 이 혁명을 이루어 갑시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서 ‘장수를 누리게’ 해 주신 모든 이와 더불어 경축하고자 하는 교회의 바람을 다시 한번 기쁘게 선포하는 기회입니다. 이날을 함께 경축합시다! 집에서든 요양원에서든 사무치는 외로움 안에 살고 계신 연로하신 분들을 찾아갑시다. 그 누구도 이날에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첫 만남부터 새로운 우정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자비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고독의 그늘과 전쟁의 마수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온유한 사랑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 모두를 온유함의 혁명을 이루는 장인이 되게 해 달라고 청합시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저의 사랑 어린 친밀함의 약속과 함께 교황 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오늘날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내가 사는 부산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았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인 나와 할머니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부모로서 나는 어떤 할머니일까, 손주들에게 어떤 할머니로 기억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올해 초, 해운대성당에 다니는 4학년인 손주 다니엘이 “할머니, 복사 설 때 가지고 있을 묵주 있으면 2개만 주세요.”해서 ‘아! 그래도 할머니 집에는 묵주가 많고 손에 묵주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구나’ 싶어 기쁜 마음에 얼른 묵주를 꺼내 주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언제, 어디서나 식사 때면 반드시 식사 전 기도와 식사 후 기도를 한다. 손주들이 어릴 때는 고사리손을 모아 어눌한 목소리로 성호경을 읊으며 십자성호의 방향을 거꾸로 할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8살 쌍둥이 손녀들도 의

숙하게 기도를 한다. ‘항상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할머니’로 손주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나는 올해 칠순이니 50년 전이었으면 할머니 중에서도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친구들과 부산 근교 둘레길을 걸을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 인생은 칠십부터라고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노년의 삶에서 육체적 건강만 생각했지 영성적인 삶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례에 참여하는 내면의 삶을 살찌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보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친구가 연로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일, 치매 친정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일 등을 의논할 때 조언을 했을 뿐 직접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도 복지정책을 펴고 있고 성당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펴니 이때 동참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얼마나 안이하고 교만한 생각인가?

다행히 내 주위에는 차상위계층의 어르신이나 불우한 이웃들이 있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하는 ‘천사들의 모임’이 있다. 이러한 작은 모임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민들레 흩날처럼 널리 퍼져 나가길 기원해 본다.

내일은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연로한 분들을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하며 온유한 사랑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 구 현 자 마리안나

사직대건성당 · 사직대건대학 학장



공동의 집
돌보기

V. 세대 간 정의

161.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잔해와 황무지와 쓰레기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소비, 낭비, 환경 변화의 속도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활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에, 이미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재앙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불균형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게 될 이들이 우리에게 추궁할 책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찬미받으소서』 159항~162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159항~162항 영상 보기
낭독 :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봉사자
이은정 데레사 외 3명



필요없는 물건은 공짜라도 거절합니다.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Diocese Busan Youth Day, BYD)

우리 교구에는 해마다 교리교사의 날, 참행복 축제(청년) 그리고 3년마다 청소년신앙축제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교황청은 각 교구마다 교구 젊은이의 날을 거행하는 사목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응답하여 우리 교구도 교구 젊은이의 날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에는 중·고등부 학생, 교리교사, 청년, 부모 그리고 젊은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다양한 연령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기쁨 그리고 교회를 형성해 가는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젊은이의 날은 ‘젊은이,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 안내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사바 3,17)

젊은이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저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공통된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젊은이의 날을 통하여 공통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젊은이들이 다른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살아가자고 초대하는 ‘젊은이 사도직’을 실현하면, 파견된 제자들의 기쁨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불림을 받은 이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나 혼자 결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젊은이의 날에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

느님의 기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땀 대신 축제의 옷” (이사 61,3)을 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체험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일들이 적어져 함께 모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젊은이 공동체 안에는 세대별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 하나의 주제로 풀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젊은이들이 함께 모인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기쁨을 나누고 성장해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2022년 청소년 주일에 발표된 교구장 담화문에서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 사회적 어려움이 그들의 절규와도 같이 들린다고 토로하였고,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교회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성직자, 수도자, 부모, 교리 교사와 또래 친구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청소년 사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자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호소에 맞갖도록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를 통한 영적지지를 드러내주시기를 청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젊은이들을 위한 영적지지 모임인 Prayer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을 사랑하려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 소개 (주교님)

천주교부산교구장
손 삼 석 요셉 주교

[일시] 11월 19일(토)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날 13:30~18:30 **[장소]** 주교좌 남천성당

Prayer : 젊은이를 위한 영적지지 모임

기간 : 8.11(목)~11.19(토)

젊은이의 날(11월 19일)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젊은이를 위한 미사’ 봉헌

[목 적]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 교구 젊은이의 날을 위한 영적지지

[대 상] 젊은이를 사랑하는 교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 (젊은이 포함)

개인적으로

1.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지향 묵상
2. 묵주기도 5단
3. 성체조배 혹은 개인 기도
4. 미사 봉헌
5. 젊은이를 위한 기도

본당에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일미사 전이나 후로
묵주기도 1단 바치기

기도 모임

8.13(토)부터 매주 토요일

15:00~17:30 푸른나무 경당

15:00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지향 묵상

15:30 묵주기도, 16:30 주일미사와 성체현시

1. 매일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지향을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2. 기도한 내용을 청소년사목국 SNS로 보내주시면, 한 주간의 기도 다발을 매주 SNS를 통해 게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 추후 공지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루카 11,9)

[나만의 성구]

위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화답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2021.11.28.~2022.11.20.)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절취선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호계

6월 30일(목) / 주임 : 박상대 신부, 회장 : 조준호 사무엘



길천

6월 26일(일)
주임 : 이성균 신부, 회장 : 전임수 분도



해운대

6월 26일(일)
주임 : 김명선 신부, 회장 : 김도균 베드로



기장

6월 26일(일)
주임 : 김욱 신부, 회장 : 이만우 스테파노



반여

6월 26일(일)
주임 : 박성태 신부, 회장 : 손영태 바오로



장산

6월 26일(일)
주임 : 김명겸 신부, 회장 : 안병영 안드레아

두왕성베드로



6월 26일(일) 명례성지 / 주임 : 김대하 신부, 회장 : 박성열 올리비아노

양산



6월 26일(일) / 주임 : 김원석 신부, 회장 : 천종철 프란치스코

서울공예사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 근 영 (바울라)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룡, 이정현, 정형하, 정재원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엽
554-1088 동래시외버스터미널 옆

조은 모바일 크레인

건설현장의 꽃
이동식 타워크레인 (일대/월대)
장비임대 및 현장담사(상담환영)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

김병호정형외과
척추, 관절/통증, 재활/도수리치/물리치료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김 병 호 (루카)
752-0020
수영구 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앞(4/5층)

법률사무소 인사이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내
대표변호사. 조 미 옥 (베로니카)
711-1939
010-3532-1939
명지 이원한세상 상가 3층(서부지원 주차장 앞)

SNU서울비뇨의학과
24시간 요로결석 치료 / 전립선, 요실금
서면 롯데백화점 정문 옆 (도보1분)
714-1725
서울대 출신 원장. 박 정 민 (가브리엘)

인산죽염 부산지사(동래)

대 표. 김기룡 (야고버)
죽염, 유황오리진액, 호두액, 진한경
557-5553
동래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

안 락 성 모 안 과
백내장 / 노안수술 / 안종합검사
황반변성, 녹내장, 드림렌즈
원장. 장 현 덕 (바오로)
상담문의 **525-5656**
안락로타리 부산은행 4층(충렬사역 2번출구)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동 진 양 산
우산, 양산 답례품 및 기념품 도매
범일동 남문시장 1층 (대로번)
646-9730
010-3593-1188
현일석(안셀보), 이경옥(파스칼리나)

6• 연중 제17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 구

에비신학생 피정

1차(중1) : 7.25(월) 10:00~17:00
2차(중2) : 7.26(화) 10:00~17:00
3차(중3) : 7.27(수) 10:00~17:00
· 푸른나무 교육관 / 문의 : 629-8760(성소국)

2024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

· 8.13(토)~14(일) · 부산 성분도 은혜의집
대상 : 사제 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2, 일반
참가비 : 4만 5천원 / 신청마감일 : 8.2(화)
*2024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할 지원자는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문의 : 629-8760(성소국)

교구청 직원(사무직) 구함

자격 : PC(한글, 엑셀) 사용가능자 / 서류 : 이력서,
교적, 자기소개서, 본당신부추천서, 자격증 사본
마감 : 8.3(수) / 문의 : 629-8733(관리국)

본 당

주례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 한글, 엑셀 숙련자 /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마감 : 8.7(일) / 문의 : 324-9551(사무실)

기관·제 단체·위원회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 7.29(금) 10:30 / 세계오지선교회 차량지원
· 남천성당 / 문의 : 623-4528(사무실)

정하상바로영성관 피정

· 8.26(금) 16:00~28(일) 중식
주제 : 하느님을 만나는 길 2박3일 피정
회비 : 13만원 / 문의 : (055)383-3101

성령새신 봉사회 (052)244-7014 울산 영성의집

-목요 밤미사
· 7.28(목) 20:00~21:40

교구평형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 7.30(토) · 삼랑진역(09:00) 출발~김범우묘
기차 : 부산역 07:39, 08:21 구포역 07:53, 08:34
점심식사 : 개인도시락 지참 또는 김범우교육관
식사예약 (055)356-7030
문의 : 629-8722(교구평형 사무국, 선교사목국)

로사리오의집 문의 : 010-7155-3498

-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 매월 2주 토요일 10:00~16:00(중식 제공)
9.17(토), 10.8(토), 11.12(토)
- 파우스티나성녀 일기통독
· 8.19(금)~21(토) / 8.26(금)~28(일)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대상 : 개인간병 경력자(65세 미만)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 개인간병사
문의 : 933-7042, 010-3572-7045

오륜대순교자성지 공사기간 중 순례 안내

미사 : 매일 11:00(월~일)
순례 : 순교자묘지참배, 십자가의길, 로사리오의길,
외부 산책로, 단체식사 가능 / 문의 : 515-0030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 주 2회(매주 월, 금) 14:00~15:30
문의 : 515-0030

교육·모집·기타

중고생 살레시오 <3S영성 리더십>교육

· 8.12(금)~14(일) 10:00~16:30 (단, 마지막 날
12:00까지 / 11:00 부모님 초대)-수료자 VIDES
(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 가입 가능
문의 : 010-5354-5796(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살레시오 미디어북 2학기 신규모집

초1~2 : 책과 함께 놀아요(50분/주1회/필독서 총12권)
초3~6 : 인문교양독서(75분/주2회/필독서 총8권)
중1~2 : 인문독서(90분/주1회/필독서 총8권)
문의 : 010-5354-5796(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피정
7.31~8.2, 8.27~29, 9.15~17, 9.19~21
여름해변자유일정 : 8.6~9. 8.13~16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 (02)773-1455, (064)796-4182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치유피정(무료)

· 8.5(금) 18:00~6(토) 17:00
· 청주교구 초청성령회관
문의 : 010-4400-1344, (043)213-9103
버스운행 :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 17:00
청주고속터미널앞(다이소) 17:2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www.holyfca.or.kr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6.7.25.

방주섭(스테파노) 신부님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본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주도하며
인간존중과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언어치료사 및 청능사 양성

www.cup.ac.kr sht.cup.ac.kr

신경외과 김영훈 과장 부임 (뇌출혈, 두부
외상, 뇌졸중, 두통, 경부통, 요통의 통증치료, 뇌혈관질환)

메리놀병원TV 이비인후과 정태영 과장
“알레르기 비염, 이것만 기억하자!”
유투브로 확인해보세요.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대표전화 : 465-8801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토, 일, 공휴일 : 11, 13, 15, 17시

051.441.3500 스프레드 특전 제공
catholicwedding.kr

1989 · 2019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명수울산주단 결혼예복, 혼수예단, 계량복 노영옥(베르타) 632-2656 010-3551-2656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11~212호 <4호선 3라인>	레인보우 단체우산 전문 서현수(소피아), 정태성(베네딕토) 010-3475-1819 245-1819	독일보청기 동래교차로(수안동)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당, 교우특별할인, 즉시 A/S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충렬대로 229, 수안역 7번출구 앞 2층	한방화장품 상황미인 상황버섯 추출물 함유 / 교우 할인 천연한방특허 바디클렌저 / 바디로션 기초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758-9115, 010-8557-8153 www.soosul.com 신(프란치스코)	성 마리네 노리터 부산시 신중년리빙랩 동아리 회원 모집 작물과 식물재배에 관심 있는 신자면 누구나 환영, 나이제한 없음 010-4272-8828 노리터 주소 : 오륜대 분도 명상의 집 농장
길맥홍부외과 <하지정맥류 중점클리닉> 모타, 고주파, 레이저, 보형수술 원장. 박 동 욱 (안드레아) 754-9975~6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센텀임페리얼타워	동래 광안 노출중, 통증 재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네스)	한국전설안전(주) 전기안전관리대행 (오피스텔, 상가, 공장, 원룸, 병원 등 빌딩) 전력 75kw 이상 남경대(프란치스코) 010-3579-2403 노영숙(아가다) 010-8519-8606	(주)가나안보청기 청각학 박사 맞춤상담 가능 / 원산지 : 독일 교우특별우대, 당일생산 서면점, 남포점, 해운대점, 동래점 김도현 (모 세) 010-7674-2828	성 모울타리 우리밀 건강빵, 해법 인증, 국내산 재료 사용 네이버 ‘이레우리밀’ 검색 유투브 ‘성모울타리’ 055-367-2232